

COMPAS
LG Arts Center Contemporary
Music & Performing Arts
Season
13

LG아트센터
2013년 기획공연 시즌
LG ARTS CENTER COMPAS13





LG아트센터 기획공연 시즌 브랜드

LG아트센터가 엄선한 우리 시대 최고의 공연을 나타내는 이름입니다.

- 01 **할인 안내**
- 02 **장르별 프로그램**
- 04 **레프 도진 연출, 상트 페테르부르크 말리 극장 <세 자매>**
The Maly Drama Theatre of St. Petersburg <Three Sisters> directed by Lev Dodin
- 06 **피아니스트 김선욱 <베토벤 소나타 전곡> (No.17-32)**
Sunwook KIM Plays <Beethoven's Complete 32 Piano Sonatas> (No.17-32)
- 08 **나윤선 콰르텟**
Youn Sun NAH Quartet
- 10 **양성원 <바흐 무반주 첼로 모음곡 전곡>**
Sung-Won YANG <J. S. Bach's Six Cello Suites>
- 12 **탱고 뮤지컬 <탕게라>**
Tango Musical <Tanguera>
- 14 **타이거 릴리스 밴드 <늑은 뱃사람의 노래>**
The Tiger Lillies <The Rime of the Ancient Mariner>
- 16 **스테파노 볼라니**
Stefano Bollani Jazz Piano Solo
- 18 **필립 헤레베케 지휘, 샹젤리제 오케스트라 & 콜레기움 보칼레 겐트 모차르트 <레퀴엠>**
Orchestre des Champs-Élysées & Collegium Vocale Gent conducted by Philippe Herreweghe
- ★ **CoMPAS13 패키지 ★**
- 22 **프랑스 마기 마랭 무용단 <총성>**
<Salves> by Compagnie Maguy Marin
- 24 **하겐 콰르텟**
Hagen Quartet
- 26 **데클란 도넬란 연출, 러시아 체홉 페스티벌 제작 <템페스트>**
Chekhov International Theatre Festival Shakespeare's <The Tempest> directed by Declan Donnellan
- 28 **서재형 연출, 최우정 작곡 음악극 <더 코러스; 오이디푸스>*****
<The Chorus; OEdipous> directed by Jae-Hyung SEO, composed by Uzong CHOI
- 30 **이자람의 판소리 브레히트 <역척가>*****
LEE Jaram, Pansori <Ukchuk-ga> directed by NAM In Woo
- 32 **벨기에 피핑 톰 무용단 <반덴브란덴가 32번지>**
<32 rue Vandenbranden> by Peeping Tom
- 34 **스페인 국립 플라멩코 발레단**
Ballet Nacional de España <Grito> & <Suite Sevilla>
- 36 **첼리스트 장-기엔 케라스**
Jean-Guihen Queyras
- 38 **러시 아워 콘서트**
Rush Hour Concert
- 40 **LG아트센터 회원 안내**
- 41 **제휴 레스토랑 안내**

LG아트센터 기획공연 시즌

LG Arts Center Contemporary Music & Performing Arts Season

CoMPAS 13

패키지 티켓 오픈

2013. 2. 5(화) 9am

개별 티켓 오픈

2013. 2. 12(화) 9am

LG아트센터의 기획공연을 더 경제적으로 즐기는 방법!

CoMPAS 패키지

좋은 공연을 보는 좋은 습관!

LG아트센터의 기획공연을 가장 좋은 좌석에서, 가장 저렴하게 보는 방법은 언제나 CoMPAS 패키지입니다.

패키지 구매자를 위한 혜택!

- 최고 40%, 최대 532,000원 할인 혜택!
- 패키지 카드 발급
- 자유 패키지 10편 이상 구매 시 '프로그램 바인더' 증정
- 패키지 구매자가 추가로 개별 티켓을 구매할 경우, 구매했던 공연을 대상으로 총 2매까지 할인을 15% 제공 (2/12 이후, 전화로만 가능)

뽕싸 할인

기간 : 2013.2.12 - 11.8

연극, 무용 장르 공연 중 한 공연, 동일 회차 R석 4매 이상 구매 시 20% 할인

단, <역척가>, <탕게라>, 스페인 국립 플라멩코 발레단 공연은 15% 할인됩니다.

조기예매 할인

기간 : 2013.2.12 - 28

개별공연 구매 시 10% 할인

학생 할인

전 기획공연에 대해 20% 학생 할인을 제공합니다. 초등학교생부터 대학원생까지 본인 1매 가능합니다.

주의사항

- VIP석과 '러시 아워 콘서트'는 제외됩니다.
- 티켓 수령 시 본인확인을 위해 '학생증'을 제시해야 하며, 그렇지 못한 경우 차액을 지불해야 합니다.
- 이미 구입한 티켓에 대해서는 본 혜택을 소급 적용하지 않습니다.

청년 할인

전 기획공연에 대해 20% 청년 할인을 제공합니다. 26세까지(1988년 1월 이후 출생자부터) 본인 1매 가능합니다.

주의사항

- VIP석과 '러시 아워 콘서트'는 제외됩니다.
- 티켓 수령 시 본인확인을 위해 '신분증'을 제시해야 하며, 그렇지 못한 경우 차액을 지불해야 합니다.
- 이미 구입한 티켓에 대해서는 본 혜택을 소급 적용하지 않습니다.

신한카드 할인

모든 신한카드 LG아트센터 기획공연 결제 시 10% 할인이 제공됩니다. 기타 할인과 중복 적용되지 않습니다.

THEATRE

4.10(wed)-12(fri)
7:30pm

연극

레프 도진 연출, 상트 페테르부르크 말리 극장
〈세 자매〉

The Maly Drama Theatre of St. Petersburg
<Three Sisters> directed by Lev Dodin
R 70,000 / S 50,000 / A 30,000

10.1(tue)-3(thu)
8pm
*10.3 3pm

데클란 도넬란 연출, 러시아 체흐 페스티벌 제작
〈템페스트〉

Chekhov International Theatre Festival Shakespeare's
<The Tempest> directed by Declan Donnellan
R 70,000 / S 50,000 / A 30,000

10.9(wed)-20(sun)
weekdays 8pm
sat 3pm & 7pm
sun 5pm
*10.9 5pm

서재형 연출, 최우정 작곡
음악극 〈더 코러스; 오이디푸스〉^{영클}

<The Chorus; OEdipous> directed by Jae-Hyung SEO,
composed by Uzong CHOE
All seats 50,000

10.25(fri)-27(sun)
fri 8pm
weekend 5pm

이자람의 판소리 브레히트 〈역척가〉^{영클}

LEE Jaram, Pansori <Ukchuk-ga>
directed by NAM In Woo
R 50,000 / S 30,000

DANCE

4.25(thu)-5.8(wed)
weekdays 8pm
weekend 3pm & 7pm

무용

탱고 뮤지컬 〈탕게라〉

Tango Musical <Tanguera>
VIP 130,000 / R 110,000 / S 90,000 / A 70,000 / B 50,000

6.5(wed)-7(fri)
8pm
*6.6 5pm

프랑스 마기 마랭 무용단 〈홍성〉

<Salves> by Compagnie Maguy Marin
R 80,000 / S 60,000 / A 40,000

11.2(sat)-3(sun)
4pm

벨기에 피핑 톰 무용단 〈반덴브란덴가 32번지〉

<32 rue Vandenbranden> by Peeping Tom
R 70,000 / S 50,000 / A 30,000

11.6(wed)-10(sun)
weekdays 8pm
sat 3pm & 7pm
sun 3pm

스페인 국립 플라멩코 발레단

Ballet Nacional de España
<Grito> & <Suite Sevilla>
VIP 120,000 / R 100,000 / S 80,000 / A 60,000 / B 40,000

**CLASSICAL
MUSIC**

4.13(sat) / 6.20(thu)
9.14(sat) / 11.21(thu)
thu 8pm
sat 5pm

클래식

피아니스트 김선옥 〈베토벤 소나타 전곡〉 (No.17-32)

Sunwook KIM Plays
<Beethoven's Complete 32 Piano Sonatas> (No.17-32)
R 70,000 / S 50,000 / A 30,000

4.21(sun)
4pm

양성원 〈바흐 무반주 첼로 모음곡 전곡〉

Sung-Won YANG <J. S. Bach's Six Cello Suites>
R 70,000 / S 50,000 / A 30,000

6.1(sat)-2(sun)
sat 7pm
sun 5pm

필립 헤레베헤 지휘,
상젤리제 오케스트라 & 콜레기움 보칼레 겐트
모차르트 〈레퀴엠〉

Orchestre des Champs-Élysées & Collegium Vocale Gent
conducted by Philippe Herreweghe
VIP 150,000 / R 130,000 / S 100,000 / A 70,000 / B 40,000

9.27(fri)
8pm

하겐 콰르텟

Hagen Quartet
R 80,000 / S 60,000 / A 40,000

11.13(wed)
8pm

첼리스트 장-기엔 케라스

Jean-Guihen Queyras
R 80,000 / S 60,000 / A 40,000

Music

4.17(wed)
8pm

뮤직

나윤선 콰르텟

Youn Sun NAH Quartet
R 80,000 / S 60,000 / A 40,000

5.11(sat)-12(sun)
5pm

타이거 릴리스 밴드 〈늑은 뱃사람의 노래〉

The Tiger Lillies <The Rime of the Ancient Mariner>
R 80,000 / S 60,000 / A 40,000

5.21(tue)
8pm

스테파노 볼라니

Stefano Bollani Jazz Piano Solo
R 80,000 / S 60,000 / A 40,000

4.10 wed - 12 fri
7:30pm

R 70,000 won
S 50,000 won
A 30,000 won

THEATRE

레프 도진 연출 상트 페테르부르크 말리 극장 〈세 자매〉

공연 시간 3시간, 휴식 1회 포함
Duration 3hrs. incl. an interval

본 공연은 러시아어로 공연되며,
한글 자막이 제공됩니다.

〈가우데아무스〉, 〈형제자매들〉, 〈바나 아저씨〉를 본 관객이라면 기억할 것이다. 무대, 배우, 희곡 등 연극의 기본 요소들이 완벽하게 유기적으로 흐르고, 마침내 그것이 안내하는 곳에 가슴을 쿵 내리치는 삶의 경이로운 순간이 있었다는 것을! 그것은 삶의 본질을 꿰뚫는 레프 도진이라는 천재 예술가의 통찰력과 치열함이 있기에 가능하다. 피터 브룩 이후 현존하는 최고의 연출가로 불리는 러시아의 거장 연출가 레프 도진은 이번에는 2010년 발표한 체홉의 〈세 자매〉로 다시 한번 LG아트센터 무대를 찾는다.

19세기 말, 모스크바 인근의 한 지방 소도시에 사는 아름다운 세 자매와 그 주변 인물들을 둘러싼 꿈과 이상, 사랑과 배신, 그리고 좌절을 그린 이 작품은 지금도 한국 뿐 아니라 전 세계 공연장에서 많이 공연되는 단골 레퍼토리이다. 도진은 이 작품을 “체홉의 작품 가운데 가장 복잡한(complex) 희곡”이라 설명한다. 즉, 인간 내면의 깊고도 다양한 얼굴을 표현한 체홉의 언어가 그 만큼 어려운 텍스트라는 이야기다. 그러나 이번에도 역시 레프 도진은 체홉의 언어를 새로운 각도에서 비틀고 해석함으로써 이 이야기가 낡은 고전이 아니라 현대에도 여전히 유의미하다는 것을 입증한다. 2010년 초연 당시 평단과 객석으로부터 극찬을 이끌어 낸 이 작품에서 상트 페테르부르크 말리 극장 배우들은 ‘훌륭한 공연은 훌륭한 배우를 필요로 한다’는 사실을 다시금 보여준다. 공연 역사상 유례가 없을 만큼 발표하는 작품마다 뛰어난 완성도로 예술적 진보를 거듭하고 있는 레프 도진은 우리 시대의 진정한 거장이라 할 수 있다. 레프 도진이 창조해 낸 연극의 기적을 직접 경험하라!

The Maly Drama Theatre of St. Petersburg returns with *Three Sisters*, Chekhov's great, tragicomic story of women contending with disillusioned life in a small Russian town. Lev Dodin directs this luminous, complex play with rich insight into Chekhov's eloquent understanding of resignation, longing, and love. Once more you will be surprised by Dodin's poignant analysis of human life and an accomplished ensemble of actors. It is a truly unforgettable theatrical miracle.



The Maly Drama Theatre of St. Petersburg 〈Three Sisters〉 directed by Lev Dodin



4.13 sat 6.20 thu
9.14 sat 11.21 thu
thu 8pm
sat 5pm

R 70,000 won
S 50,000 won
A 30,000 won

CLASSICAL MUSIC

피아니스트 김선욱 〈베토벤 소나타 전곡〉 (No.17-32)

프로그램

4.13 Op.31 No.2-3 / Op.49 No.1-2 / Op.53

6.20 Op.54 / Op.57 / Op.78 / Op.79 / Op.81a

9.14 Op.90 / Op.101 / Op.106

11.21 Op.109 / Op.110 / Op.111 (인터미션 없음)

*상기 프로그램 순서는 연주자의 사정에 따라
예고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바야흐로 지금이 자신의 시대임을 증명이라도 하듯, 2012년 4회 공연 중 3회 공연 전석을 매진시키며 점점 기대감을 높여 가고 있는 피아니스트 김선욱의 “베토벤 피아노 소나타 전곡 프로젝트” 대장정이 올해도 계속된다.

가장 피아니스트들에게도 쉽지 않은 32개의 베토벤 피아노 소나타 전곡을 25세의 젊은 나이에 장장 2년 동안 총 8회에 걸쳐 완주해 내겠다는 그의 도전은 작년 국내 클래식 음악계의 초미의 관심사였다. 게다가 그는 보통의 베토벤 소나타 연주회 프로그램과는 달리 소나타 32곡을 출판 순서대로 짚어나가며 베토벤의 인생을 따라가는 진지함으로 더욱 주목받았다. 이는 국내 무대에서 쉽게 접할 수 없는 베토벤 초기 소나타를 제대로 들을 수 있는 보기 드문 기회였으며, 회차가 거듭될수록 깊이와 여유가 돋보이는 연주라는 호평을 받기도 하였다.

베토벤과 함께 했던 지난 한 해 동안 김선욱은 국내보다는 주로 크고 작은 해외 무대에서 실력을 갈고 닦았는데 특히 독일 본(Bonn)에 위치한 베토벤의 생가, “베토벤 하우스(Beethoven-Haus)”와의 인연은 각별했다. 지난 여름 이곳에서 열린 안드라스 쉬프(András Schiff)와의 마스터 클래스에서는 베토벤의 마지막 소나타를 연주했고, 12월 17일 베토벤 탄생일을 기념하는 음악회에도 초청받아 베토벤 소나타로 무대를 꾸몄다.

김선욱은 올해 남은 총 4회의 공연에서 ‘템페스트’를 시작으로 ‘발트슈타인’, ‘열정’, ‘고별’ 등 잘 알려진 소나타를 포함, 베토벤의 초인간적인 예술세계가 담긴 후기 소나타에서 정점을 이루며 긴 여정을 마무리 한다. 32개의 소나타 하나하나에 살아있는 숨을 불어넣고 싶다는 ‘베토벤을 숭배하는 청년’ 김선욱의 의미 깊은 완주를 끝까지 지켜보자.

Sunwook KIM, who embarked on a two-year project to play the complete cycle of Beethoven's 32 piano sonatas last year, will continue the remaining journey in April beginning with Sonata No.17 “Tempest”. KIM's last year journey into the early sonatas received enthusiastic responses from start to finish bringing about enormous anticipation in his interpretation of middle and late sonatas. This year's project will assure KIM's ever-growing artistry and complete the epic journey with audience.

Sunwook KIM Plays 〈Beethoven's Complete 32 Piano Sonatas〉 (No.17-32)



4.17 wed
8pm

R 80,000 won
S 60,000 won
A 40,000 won

MUSIC

나윤선 콰르텟

공연 시간 90분, 휴식 없음
Duration 90mins, no interval

그 어떤 악기보다 정교한 목소리의 스펙터클

“현재 최고의 재즈 보컬은 유럽도 미국도 아닌, 한국에서 온 나윤선이다.”(Les Echos)라는 프랑스 언론의 평은 결코 과장이 아니다. 나윤선은 지난 10년간 유럽 음악계에서 그 누구도 넘보지 못할 금자탑을 세웠다.

2001년 프랑스에서 데뷔작 <Reflect>를 발표하며 활동을 시작한 나윤선은 2008년 유럽 재즈를 대표하는 ACT 레이블과 계약하고 발매한 6집 <Voyage>로 프랑스 문화예술공로훈장 슈발리에를 수훈하는 영광을 얻었다. 그리고 2010년 발매한 7집 <Same Girl>은 프랑스 재즈 차트 4주 연속 1위를 기록했고, 발매된 지 80주가 넘게 Top 20을 유지하였다. 한국대중음악상에서 ‘최우수 재즈 앨범상(2009)’을 수상하고, 독일 에코(ECHO) 재즈 시상식에서도 ‘최우수 여성 가수’(2011)로 선정되는 등, 그녀에 대한 열광은 그칠 줄 모른다.

나윤선의 연주는 본류(本流)가 무엇인지 이야기하기 어려울 정도로 고유하고 독보적이다. 송곳처럼 정확하게 음표를 찌르다가도, 한 순간 파도처럼 악보를 휘저어버린다. 그녀는 들숨과 날숨까지도 음악의 일부가 되어 인간의 목소리만큼 섬세한 악기는 없다는 것을 증명한다.

8집 새 앨범 발매와 함께 개최될 이번 콘서트는 그녀의 음악을 가장 잘 이해하는 음악적 동지인 울프 바케니우스(기타), 랄스 다니엘손(베이스), 뱅상 빠라니(아코디언)가 함께 콰르텟 구성으로 무대를 꾸민다. 명실상부 유럽 정상 재즈 뮤지션으로 자리매김한 그녀가 동료들과 함께 선사할 황홀한 앙상블을 기대해 보자.

As Les Echos proclaimed her ‘the greatest jazz singer of today’, Youn Sun NAH is now a leading jazz artist in the international jazz scene. The last two albums *Voyage* and *Same Girl* brought her a huge success and reputation. *Same Girl* reached #1 of the jazz charts in France and stays in the top 20 over 80 weeks. Celebrating her 8th album release, Youn Sun NAH returns to LG Arts Center with her best musical partners - Ulf Wakenius(guitar), Lars Danielsson(bass), and Vincent Peirani(accordion). Let’s enjoy her magnificent voice with new songs and great ensembles.

Youn Sun NAH Quartet

4.21 sun
4pm

R 70,000 won
S 50,000 won
A 30,000 won

CLASSICAL MUSIC

양성원 〈바흐 무반주 첼로 모음곡 전곡〉

프로그램 J. S. 바흐 무반주 첼로 모음곡
BWV1007-1012

공연 시간 3시간, 휴식 1회(30분) 포함
Duration 3hrs. incl. an interval(30mins)

Sung-Won YANG 〈J. S. Bach's Six Cello Suites〉

2007년 베토벤, 2009년 슈베르트, 2011년 독일 낭만주의 피아노 트리오를 통해 언제나 탐구하며 정진하는 음악가로서의 신뢰를 심어준 첼리스트 양성원(Sung-Won Yang)이 이번엔 J. S. 바흐의 무반주 첼로 모음곡 전곡을 하루에 완주하는 프로젝트로 LG아트센터 무대에 선다.

양성원은 이미 2005년 철저한 연구를 바탕으로 한 완성도 높은 음반(EMI)을 내놓아 평단과 애호가 모두로부터 호평을 끌어낸 바 있는 이 대곡(大曲)의 악보를 어떤 연주에서든 지니고 다니며 연구에 연구를 거듭해 왔다. 특히 양성원은 올 1월 이 명곡의 연구 과정과 발견을 다각도로 담은 교육용 영상 “바흐 모음곡 탐구(Exploring Bach Suites)”를 LG유플러스 자회사 서비스인 ‘클래식팟’을 통해 내놓아 전공생 및 애호가와 함께 자신의 음악적 지혜를 나누고 있다.

첼리스트에게 ‘구약성서’와도 같은 이 곡을 끊임없이 연주하며 “무한한 세상이 열리는 것 같은 새로운 면모를 계속해서 발견하게 된다”는 양성원의 이번 도전에는 특별히 17-18세기 연주 관행의 전문가인 영국의 음악학자 데이비드 레드베터(David Ledbetter)가 함께 하여 양성원의 연주에 앞서 작곡의 배경과 이 작품의 역사적 가치 등을 해설해 줄 예정이다.

Cellist Sung-Won YANG challenges J. S. Bach's all six suites for cello in one evening. To YANG, this achievement for solo cello by Bach, so-called “Old Testament” for cello, is the most perfect work in music history that endlessly inspires generations to come. YANG invites the audience to join his journey into the essence of the great work.

“모차르트, 베토벤, 슈베르트 등 위대한 작곡가들에겐 본인들의 언어가 있었다. 하지만 이 모든 작곡가들이 사모하는 바흐의 언어는 인류를 대표하는 언어였다.”

양성원



Tango Musical 〈Tanguera〉

“지난 오랜 세월 동안 보아왔던
탱고 공연들을 모두 잇게 만들었다.”

Le Parisien, 프랑스



4.25 thu - 5.8 wed

weekdays 8pm

weekend 3pm & 7pm

VIP 130,000 won

R 110,000 won

S 90,000 won

A 70,000 won

B 50,000 won

DANCE

탱고 뮤지컬 〈탕게라〉

관람 추천 15세 이상

This production is suitable for 15+ years old.

공연 시간 90분, 휴식 없음 / 월요일 공연 없음

Duration 90mins, no interval / No performance on Mondays.

제작 로메이 프로덕션

Produced by Romay Producciones

관능과 정열의 탱고로 만들어진 아르헨티나 오리지널 댄스 뮤지컬

20세기 초 아르헨티나의 부에노스 아이레스, '약속의 땅'을 찾아 유럽을 떠났던 이민자들의 배가 도착하고, 아름다운 여인 지젤이 항구에 발을 디딘다. 그녀는 순박한 청년 로렌조를 만나 사랑에 빠지지만 암흑가의 보스 가우덴시오가 마수를 뻗치면서 이들에게 힘겨운 시련이 닥치는데...

아르헨티나에서 만들어진 최초의 탱고 뮤지컬 〈탕게라〉가 드디어 한국을 찾아온다. '탱고를 추는 여성 댄서'를 제목으로 한 〈탕게라(Tanguera)〉는 금세기 탱고의 여신으로 불리는 모라 고도이(Mora Godoy)가 안무를 맡고, 아르헨티나 최고의 음악가와 프로듀서가 모여 제작한 댄스 뮤지컬 작품으로 2002년 부에노스 아이레스에서 초연된 이후 엄청난 센세이션을 불러 일으켰다. 이렇게 브로드웨이나 웨스트엔드 등에서 제작된 기존의 탱고 공연들과는 태생적으로 차별적인 〈탕게라〉는 아르헨티나에서 온 30여명의 남녀 댄서와 라이브 뮤지션들이 출연해 대사 없이 춤과 음악만으로 '본고장' 탱고의 정수를 충실히 담아내는 한편 스펙터클한 무대와 비극적인 사랑 이야기로 관객들의 마음을 사로잡는다. 역시 아르헨티나 출신으로 탱고에 남다른 애착을 지닌 세계적인 지휘자 다니엘 바렌보임(Daniel Barenboim)의 후원을 받기도 한 이 작품은 뉴욕, 런던, 파리, 마드리드, 베를린, 도쿄 등을 투어하며 전세계적인 히트를 기록하고 있다. 섬세하게 음악을 타고 이뤄지는 남녀간의 농밀한 호흡, 절제된 듯 도발적인 몸 동작, 우아하면서도 유혹적인 스타일로 펼쳐지는 사랑과 열정, 질투와 복수의 드라마 〈탕게라〉, 거부할 수 없는 매력의 그녀를 만나라!

After performing to sell-out audiences and gathering rave reviews across the globe, Argentina's smash-hit tango musical *Tanguera* comes to Seoul. Boasting a company of over 30 homegrown dancers and musicians, *Tanguera* tells a story of unrequited love in early 20th century Buenos Aires. It is an adrenaline-charged journey through the world of tango with award-winning choreography by renowned Argentinean dance star Mora Godoy, and the intoxicating rhythms and seductive music.

5.11 sat - 12 sun

5pm

R 80,000 won

S 60,000 won

A 40,000 won

MUSIC

타이거 릴리스 밴드 〈늑은 뱃사람의 노래〉

공연 시간 90분, 휴식 없음
Duration 90mins, no interval

1989년 결성된 타이거 릴리스는 아코디언 연주와 노래를 하는 마틴 자크(Martyn Jacques), 드러머 아드리안 휴즈(Adrian Hugs), 더블 베이스 아드리안 스타우트(Adrian Stout)로 이루어진 밴드이다. 한번 들으면 결코 잊을 수 없는 목소리를 가진 마틴 자크는 천사와 같은 목소리로 영국 현대인의 밑바닥의 삶을 노래한다는 평을 듣고 있다. 독학으로 오페라 카스트라토 스타일의 창법을 터득한 그는 가슴을 저미는 아름답고 강렬한 목소리로 마약에 중독된 사람들, 흥등의 여자들과 포주들, 사회의 경쟁에 낙오된 사람들 등 현대 사회의 어두운 면들과 그들의 삶을 적나라하게 노래한다. 타이거 릴리스는 컬트 뮤지컬 〈쇼크헤디드 피터(Shockheaded Peter)〉의 음악과 출연으로 센세이션을 일으키며 올리비에상을 거머쥐기도 했다. 오페라와 집시풍의 카바레 음악을 혼합한 듯 장르를 규정지을 수 없는 이들의 독특한 음악 세계는 뮤지컬, 음악극, 콘서트 등 자신들의 사상과 예술세계를 표현할 수 있는 장르라면 무엇이든 소화한다. 이들의 음악이 다른 모든 음악과 차별화되는 가장 큰 특징은 노래 안에 희로애락의 모든 감정과 가공되지 않은 날것의 열정이 전해지기 때문이다.

첫 한국 공연으로 준비한 90분간의 〈늑은 뱃사람의 노래〉는 19세기 영국의 위대한 시인 중 한 명인 사무엘 테일러 콜리지(Samuel Taylor Coleridge)의 동명 시에 음악을 붙이고 비주얼 아티스트 마크 홀투스엔(Mark Holthusen)이 영상을 입힌 작품이다. 관객들은 멀티 스크린에 프로젝트되는 애니메이션과 비디오 그리고 다른 여러 마술같은 무대연출을 통해 콜리지의 초현실적인 스토리와 시적 음울에 빠져들고 동시에 타이거 릴리스만이 선사할 수 있는 기이하고 독특한 음악적 경험을 하게 될 것이다.

The Tiger Lillies are an extraordinary three-piece band and their music is a startling mixture of opera, gypsy song and left-bank Paris, but what really marks out this band from any others is the emotional charge and raw passion of the delivery. The upcoming performance is a 90-minute musical adaptation of Samuel Taylor Coleridge's *The Rime of the Ancient Mariner*, a collaboration with visual artist Mark Holthusen. Throughout the performance, the multimedia stage production will immerse the audience in the world of Coleridge's surreal ballad, shifting from song to song and creating a show that is somewhere between a movie and a concert.

The Tiger Lillies 〈The Rime of the Ancient Mariner〉

“타이거 릴리스의 공연은 멜로드라마를 관통하는 거친 감정 속으로 그리고 기이한 아름다움의 이면으로 파고드는 여정이다.”

The Evening Standard, 영국



Stefano Bollani Jazz Piano Solo

“떠들썩한 펠리니의 영화를 보면서
마주치는 깨달음의 순간처럼, 슬프고도
아름다운 추억과 같은 독특한 감정의 기류를
볼라니의 연주에서 마주하게 된다.”

“은빛 발라드에서 익살스런 감정까지
볼라니는 만화경 같은 자신의 재능을
펼쳐 보였다.”

The New York Times

5.21 tue
8pm

R 80,000 won
S 60,000 won
A 40,000 won

MUSIC

공연 시간 90분, 휴식 없음
Duration 90mins. no interval

스테파노 볼라니

2006년 자라섬 국제재즈페스티벌에 트리오로 처음 내한하여 국내 재즈팬 사이에서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던 재즈 피아니스트 스테파노 볼라니(Stefano Bollani)가 7년만에 솔로로 돌아온다.

볼라니는 이탈리아 재즈의 거장인 엔리코 라바(Enrico Rava)와 1996년 파리에서의 협연을 시작으로 그와의 인연을 이어갔으며, 라바와 함께 한 앨범 《Rava Plays Rava》(Philology, 1999)를 통해 음악적 방향성을 확고히 하면서 한 단계 성장할 수 있었다. 그는 이후 수많은 재즈 음반을 통해 전통적인 재즈 피아노의 본질에서부터 자신만의 스타일리시한 즉흥까지 다양한 연주를 선보이며, 세련되고 부드러우면서 서정성을 강조한 자신만의 스타일을 구축하면서 이탈리아 재즈의 뉴 제너레이션으로 자리를 확고히 하고 있다.

볼라니는 2007년 미국의 웹진인 《All About Jazz》에서 비평가들이 뽑은 ‘다섯 명의 가장 뛰어난 연주자’로 소니 롤리스, 오넷 콜맨 등과 함께 선정되었으며, 2003년에는 일본의 가장 권위 있는 재즈 잡지인 《Swing Journal》에서 유럽 뮤지션 가운데 처음으로 ‘뉴 스타 어워드(The New Star Award)’를 수상했다. 또한 최근에는 클래식 지휘의 거장 리카르도 샤이(Riccardo Chailly)가 지휘하는 라이프치히 게반트하우스 오케스트라와 녹음한 조지 거슈윈(George Gershwin)의 “랩소디 인 블루”와 피아노 협주곡 F장조(Decca, 2010), 30년대 클래식 작곡가들의 명곡들을 다룬 《Sound of the 30's》(Decca, 2012) 음반을 내어 높은 찬사를 받으며 재즈에만 한정되지 않는 폭넓은 음악적 스펙트럼을 보여주고 있다.

현재 유럽을 넘어 세계 재즈계의 새로운 세대를 이끌고 있는 스테파노 볼라니가 보여줄 이번 첫 솔로 공연은 이제까지 그가 펼쳐 보인 음악적 스펙트럼만큼이나 폭넓고 풍부한 연주를 통해 오늘날 재즈 피아니스트 중 최고임을 증명할 것이다.

Stefano Bollani, the leading European jazz pianist, returns to Korea in his solo piano concert in May. Selected among the “five most important jazz musicians” by the New York based magazine All About Jazz, Bollani has become a leading figure in the contemporary jazz scene. As shown in his recent acclaimed collaborations in Decca albums with the renowned Italian conductor Riccardo Chailly, Bollani will show in his first solo concert in Seoul his genuine pianism of a wide spectrum.

6.1 sat - 2 sun

sat 7pm

sun 5pm

VIP 150,000 won

R 130,000 won

S 100,000 won

A 70,000 won

B 40,000 won

CLASSICAL MUSIC

필립 헤레베헤 지휘 상젤리제 오케스트라 & 콜레기움 보칼레 겐트 모차르트 <레퀴엠>

Orchestre des Champs-Élysées & Collegium Vocale Gent conducted by Philippe Herreweghe

프로그램

모차르트 교향곡 제 41번 "주피터",
"레퀴엠" K.626

솔리스트

임선혜(sop), 크리스티나 하마슈트웬(alto),
벤자민 홀렛(ten), 요하네스 바이씨(bass)

*상기 프로그램은 연주자의 사정에 따라
예고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2006년 첫 내한공연에서 명불허전(名不虛傳)의 바흐 "b단조 미사"를 선보이며 국내 애호가들에게 대단히 깊은 인상을 심어주었던 필립 헤레베헤(Philippe Herreweghe)가 7년 만에 다시 한국을 찾는다. 특히 이번에는 콜레기움 보칼레 겐트와 더불어 자신의 상젤리제 오케스트라(Orchestre des Champ-Élysées)까지 대동하여 모차르트의 <레퀴엠>을 들려줄 예정이다.

상젤리제 오케스트라는 18-20세기 관현악곡을 연주하기 위해 1991년 헤레베헤가 파리에서 창단한 시대악기 오케스트라로 모차르트, 베토벤에서 브루크너, 말러에 이르는 교향곡 연주는 물론, 콜레기움 보칼레 겐트(1970년 창단)와 함께하는 브람스, 포레 등의 합창곡 연주에 이르기까지 헤레베헤가 언제나 대동하는 그의 수족(手足)과도 같은 악단이다. 헤레베헤가 1997년 이미 이 두 단체와 녹음한 모차르트의 <레퀴엠>(아르모니아 문디)은 "극적인 면과 슬픔의 면모를 모두 살린 인상적인 성과"(BBC뮤직 매거진)라는 찬사를 받으며 지금까지도 필청 연주의 하나로 손꼽히고 있다. 나아가 이 곡은 헤레베헤의 핵심 레퍼토리로서 계속적으로 무대에 올려지면서 시간과 함께 진화하는 곡이기도 하다. 특히 이번 내한에는 헤레베헤가 발탁하여 현재 유럽 고음악 무대에서 맹활약하고 있는 소프라노 임선혜가 독창자로 함께 무대에 오른다.

지극히 정제된 사운드와 과장하지 않는 진실한 음악성으로 관객의 마음 깊은 곳까지 진한 여운을 남기는 고음악의 거장 필립 헤레베헤. 이번 공연에서 그는 모차르트 최후의 작품인 <레퀴엠>으로 다시 한번 잊을 수 없는 음악적 경험을 국내 팬들에게 선사할 것이다.

The esteemed Belgian conductor Philippe Herreweghe, who gave indelible impression on the Korean audience with J. S. Bach's *Mass in b minor* in 2006, returns to Korea in 7 years with Collegium Vocale Gent and Orchestre des Champ-Élysées to perform Mozart's final work *Requiem* in two concerts. The sonorous depth of Herreweghe's forces will make Mozart's masterpiece resonate long in your heart.

"헤레베헤의 모차르트는 긴박하지만
꾸밈없고 놀랍도록 디테일이 살아있다.
또한 합창단의 연주는
통제력과 정확성에서 완벽하다."

The Guardian, 영국



탕게라 Tanguera



총성 Salves



세 자매 Three Sisters



템페스트 The Tempest



반덴브란덴가 32번지 32 rue Vandenbranden



높은 뱃사람의 노래 The Rime of the Ancient Mariner.

6.5 wed - 7 fri

8pm

*6.6 5pm

R 80,000 won

S 60,000 won

A 40,000 won

DANCE

프랑스

마기 마랭 무용단

〈총성〉

공연 시간 70분, 휴식 없음

Duration 70mins. no interval

피나 바우쉬와 함께 유럽 현대 무용의 양대 산맥으로 불리는 프랑스를 대표하는 안무가 마기 마랭(Maguy Marin)이 2003년 내한 이후, 10년 만에 그녀의 무용단인 마기 마랭 컴퍼니와 함께 한국을 찾는다. 〈메이 비〉, 〈박수만으로 살 수 없어〉로 한국 팬들의 열렬한 호응을 얻은 바 있는 그녀는 춤과 연극과 음악을 결합한 독특한 작품 속에 기상천외한 동작과 다양한 분장과 소품 등을 무용 언어로 차용함으로써 80년대 이후 현대 무용계에 커다란 영향을 끼쳐온 인물이다.

이번에 내한하는 작품은 2010년 초연된 〈총성(Salves)〉으로 탈출구를 찾을 수 없는 암울한 유럽의 현실을 소재로 한다. 그녀는 한 인터뷰에서 '사회 전반에 스며들어 있는 비관주의를 보여줌으로써 무대 위의 저항을 다룬 작품'이라고 말한 바 있다. 즉, 35년 동안 50여 편의 작품을 통해 꾸준히 자신만의 예술 세계를 구축해 거장의 반열에 올라선 62세 예술가의 눈에 비친 오늘날의 유럽이 과감하게 그려진 작품이다. 공연이 시작되면 전쟁이 한창 벌어지고 있는 어느 도시의 한 가정집 같은 곳에서 무용수들은 식탁을 차리고 탈출을 시도하고 다른 세계를 동경하는 듯한 몸짓을 보여준다. 한 편의 재난 영화 혹은 연극 같기도 한 이 작품은 7명의 무용수가 70분 동안 매우 스피드하고 밀도 있는 움직임을 선보인다. 댄스 플로어가 아닌 두꺼운 카펫을 깔고 공연할 만큼 과격하고도 강도 높은 움직임이 특징이며, 특히 한 편의 추상화를 보는 듯한 아름다운 엔딩 장면이 인상적이다. 초연 직후, 평론가와 관객들은 '마기 마랭이 왜 유럽 현대 무용계에서 중심축이 되었는지 그의 예술 세계를 압축해서 보여주는 걸작'이라는 평을 쏟아냈다. 2013년,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될 단 하나의 현대 무용 작품을 꼽으라면, 단연코 마기 마랭의 작품이 될 것이다.

One of the most significant figures in the French new wave, Maguy Marin, is coming to Korea with her new creation *Salves*. A lady who dares to take risks in mixing dance and theatre, Marin has been successfully blending the two for over thirty years. The French choreographer created *Salves* in 2010 and is universally acclaimed as a masterpiece. *Salves* condenses Marin's career and her incredible vision of choreography with a masterful touch.

Do not miss this outstanding masterpiece.



© Jean-Pierre Maurin



© Jean-Pierre Maurin

<Salves>

by Compagnie Maguy Marin



© Jean-Pierre Maurin

9.27 fri
8pm

R 80,000 won
S 60,000 won
A 40,000 won

CLASSICAL MUSIC

하겐 콰르텟

프로그램

베토벤 현악4중주 C장조 Op.59 No.3 "라주모프스키"

베토벤 현악4중주 B장조 Op.130

베토벤 현악4중주 Op.133 "대푸가"

*상기 프로그램은 연주자의 사정에 따라
예고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일반 베르크 콰르텟 이후 최고의 현악4중주단으로 꼽히며 열렬한 국내 애호가층을 형성하고 있는 하겐 콰르텟(Hagen Quartet)이 2006년 이후 7년 만에 LG아트센터 무대에 선다.

1981년 오스트리아 음악 명가인 하겐가(家)의 자녀들이 창단한 하겐 콰르텟은 1987년 현재의 제2 바이올리니스트로 교체된 이후 동일한 멤버로 25년 이상 호흡을 맞춰오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한 하겐 콰르텟의 정제된 음색과, 정교한 앙상블, 그리고 고도의 응집력은 이들이 연주하는 시대와 양식을 망라한 모든 음악에서 빛을 받으며 세계 주요 무대에서 깊은 감동을 주고 있다. 또한 하겐 콰르텟은 찬사의 연속이었던 45장의 도이체 그라모폰(DG) 음반에 이어 2011년 신생 레이블인 미리오스(Myrios) 클래식을 통해 한층 더 진보된 연주를 들려주며 2011 독일 예고 클래식 어워드에서 "올해의 앙상블"로 선정되기도 하였다.

2011년 창단 30주년을 기념하면서 비엔나, 런던, 파리, 도쿄, 뉴욕 등에서 현악4중주의 핵심 레퍼토리인 베토벤 현악4중주 사이클을 진행하고 있는 하겐 콰르텟은 7년만의 서울 무대에서도 베토벤으로만 꾸며진 프로그램을 들려준다. 이미 여러 장의 음반을 통해 균형감각과 강렬한 에너지를 동시에 투사한 베토벤으로 깊은 인상을 심어주었던 하겐 콰르텟은 지난 30년 간 발전시킨 정교한 음악적 호흡을 실연 무대에서도 유감없이 발휘할 것이다.

Hagen Quartet, one of the finest string quartets in the world, comes back to LG Arts Center in 7 years with an all-Beethoven program. To celebrate the Quartet's 30th anniversary, they embarked on performing Beethoven's all 16 string quartets in the world's major musical capitals. The Hagen's refined, impeccable ensemble will ensure the audience how the 30 years have evolved into the perfect chamber music making.

Hagen Quartet

"한층 더 진일보하는 월드 클래스 앙상블. 이들의 숨이 멎을 것 같은 신선한 해석은 중독성이 있다. 이들의 풍부한 음색과 감성에 완전히 마음을 빼앗기게 된다."

Fono Forum, 독일

"하겐의 연주는 절묘함과 경이로움으로 가득하다. 그 정확하고 역동적이며 기민한 연주는 숨막히게 아름답다. ... 실로 흥미진진한 경험."

The Independent, 영국



10.1 tue - 3 thu

8pm

*10.3 3pm

R 70,000 won

S 50,000 won

A 30,000 won

THEATRE

데클란 도넬란 연출

러시아

체홉 페스티벌 제작

<템페스트>

공연 시간 2시간, 휴식 없음

Duration 2hrs. no interval

본 공연은 러시아어로 공연되며, 한글 자막이 제공됩니다.

셰익스피어 연출의 대가와 러시아 앙상블의 환상 공합이 만들어 낸 명작

2007년 첫 내한공연에서 남자 배우들만으로 만든 <십이야>로 LG아트센터를 가득 메운 관객들의 뜨거운 기립박수를 이끌어냈던 데클란 도넬란과 체홉 페스티벌이 이번에는 셰익스피어의 마지막 작품으로 복수와 용서, 사랑과 인생의 환희가 모두 녹아 들어있는 한 편의 마법과도 같은 이야기 <템페스트>로 돌아온다.

러시아 체홉 페스티벌은 영국의 대표 연출가 데클란 도넬란이 이끌고 있는 극단 칙 바이 자울(Cheek by Jowl)의 '형제 극단'으로 불리며 정기적으로 도넬란의 작품을 공연하고 있는데, <템페스트>는 <십이야>에 이어 두 번째로 호흡을 맞춘 셰익스피어 작품이다. 러시아와 영국에서 각각 최고의 권위를 자랑하는 연극상인 황금 마스크상과 세 번의 올리비에 상을 수상한 바 있는 데클란 도넬란은 1997년에 러시아 말리 극장 배우들과 함께 한 <겨울 이야기>를 시작으로 러시아 배우들과 인연을 맺기 시작해, 이후 체홉 페스티벌과 <보리스 고두노프>, <십이야>, <세 자매> 그리고 <템페스트>를 연달아 공연하며 황금 공합을 보여주고 있다.

2011년 파리에서 초연한 이번 작품은 명료한 작품 해석과 힘있는 연출이 러시아 배우들의 탄탄한 연기력과 어우러져 셰익스피어의 유려한 언어를 초월하는 매혹적인 감동을 전해주고 있다는 극찬을 받고 있다. 이전의 <십이야>를 통해서도 경험했듯이 도넬란의 작품에는 보는 내내 유쾌한 유머가 살아있으면서도 작품을 관통하는 문학성 역시 결코 놓치지 않고 있는데, 뜨거운 열정의 러시아 배우들과 군더더기 없이 세련된 연출이 만나 일으키는 연극적 시너지가 더할 나위 없는 즐거움을 선사할 것이다.

Moscow's Chekhov International Theatre Festival and director Declan Donnellan return to LG Arts Center with a magical and dynamic story of Shakespeare's *The Tempest*. Winner of the Golden Mask Award as well as three-time winner of the Oliver Award, Declan Donnellan, and set and costume designer Nick Ormerod, transformed this classic and enigmatic play into a minimalist staging with thrilling freshness and wit. Under the direction of Donnellan, the internationally renowned Russian ensemble, whose "acting is nothing short of sublime"(The Times), will provide a perfect opportunity to see one of the finest Shakespeare productions beyond the English language.

Chekhov International Theatre Festival Shakespeare's <The Tempest> directed by Declan Donnellan



10.9 wed - 20 sun

weekdays 8pm

sat 3pm & 7pm

sun 5pm

*10.9 5pm

All Seats

50,000 won

THEATRE

서재형 연출

최우정 작곡

음악극

〈더 코러스; 오이디푸스〉앵글

공연 시간 1시간 40분, 휴식 없음 / 월요일 공연 없음

Duration 1hr 40mins. no interval / No performance on Monday.

제작 LG아트센터

Produced by LG Arts Center

초연 2011년 4월 LG아트센터

Premiered at LG Arts Center in April 2011

2011년 첫 공연 직후, SNS를 통한 빠른 소문으로 엄청난 인기를 몰아 하루 만에 8회 공연을 완전히 매진시켰던 화제작 〈더 코러스; 오이디푸스〉가 돌아온다. 연출가 서재형과 작곡가 최우정, 작가 한아름 등 우리 공연계의 주목 받는 아티스트들이 의기투합하여 만들어낸 음악극 〈더 코러스; 오이디푸스〉는 그간 국내에서 공연되었던 모든 〈오이디푸스〉 중 가장 젊고 세련된 작품으로 회자되며, 관객들로부터 큰 갈채를 받았다.

〈청춘, 18대〉, 〈호야: 好夜〉, 〈죽도록 달린다〉, 뮤지컬 〈왕세자 실종사건〉 등 여러 작품을 통해 독특한 형식미와 세련미를 선보였던 서재형 연출가가 음악과 춤, 드라마를 짜임새 있게 엮어낸 이 작품은 희랍 비극의 큰 특징 중 하나인 ‘코러스’의 존재를 부각시키며, 연극의 원형에 가까우면서도 현대적인 음악극으로의 성공적 변신을 꾀했다. 미니멀한 원형 무대, 그 위를 뛰어다니며 뿜어내는 남자 배우들의 파워풀한 에너지 그리고 현대적이면서도 잊혀지지 않는 멜로디가 단 한 순간도 관객들이 긴장의 끈을 놓지 못하도록 할 〈더 코러스; 오이디푸스〉. 이번 공연에서도 관객들은 LG아트센터 무대 위로 올라간 객석에서 관극의 즐거움도 맛볼 뿐 아니라, 오이디푸스의 비극적 운명에 더 가까이 마주하게 될 것이다.

The Chorus; OEdipus, one of the most young and sensational *Oedipus Rex* in Korea, returns to LG Arts Center in two years. *The Chorus; OEdipus* directed by Jae-Hyung SEO and composed by Uzong CHOE was a complete sold-out hit in only one day after the premiere because of its powerful images and unforgettable melodies in 2011. In its encore performances, you'll enjoy the tragic hero's fate more clearly as well as energetic movements and voices of chorus.



〈The Chorus; OEdipous〉 directed by Jae-Hyung SEO, composed by Uzong CHOE

“서재형 연출의 〈더 코러스; 오이디푸스〉는 선배들의 공연을 뛰어넘을 만큼 강렬했다.”

매일경제 김슬기 기자

“〈더 코러스; 오이디푸스〉는 원작이 바탕인 작품의 숙명인 클리셰(진부한 표현)를 뛰어 넘는 영리함을 보여줬다.”

뉴스스 이재훈 기자



10.25 fri - 27 sun

fri 8pm
weekend 5pm

R 50,000 won
S 30,000 won

THEATRE

이자람의 판소리 브레히트 〈억척가〉 앵클

LEE Jaram Pansori <Ukchuk-ga> directed by NAM In Woo

공연 시간 2시간 20분, 휴식 1회 포함

Duration 2hrs 20mins. incl. an interval

공동 제작 LG아트센터, 의정부예술의전당,
판소리만들기 '자'

English subtitles will be provided.

관객의 심연을 뒤흔드는 거대한 감동

2011년 초연 시 관객과 평단의 만장일치 찬사를 받고, 2012년 재공연에서 두 달 전 전석 매진을 기록하며 관객들의 열렬한 환호를 받았던 〈억척가〉가 새로운 모습으로 LG아트센터 무대 위에 선다. 지난해 프랑스와 루마니아 투어를 통해 해외 공연에서도 기립박수를 받으며 세계의 관객들과 뜨거운 감동을 나누고 있는 〈억척가〉는 무대 위에 객석을 설치했던 이전 공연과 다르게 2013년부터는 본래의 LG아트센터 무대와 객석을 유지한 대극장 버전으로 더 많은 관객들에게 새로운 모습을 선보일 예정이다.

브레히트의 희곡 〈억척어멈과 그 자식들〉을 모티브로 한 〈억척가〉는 전작 〈사천가〉에서도 호흡을 맞춘 바 있는 남인우 연출과 함께, 중국의 위, 촉, 오 삼국시대를 배경으로 전쟁이라는 풍파에 시달리면서 억척같이 살아간 한 여인의 기구한 인생을 판소리극으로 재창작한 작품이다. 뛰어난 소리꾼이자 재능 있는 배우이기도 한 이자람은 직접 창작한 50여 곡이 넘는 판소리를 통해 혼자서 15명이 넘는 캐릭터를 자유자재로 연기하며 두 시간 동안 관객들을 울고 웃게 만든다.

순간의 감동을 주는 공연은 많지만 오래도록 그 기억을 되새기고 곱씹게 하는 공연은 결코 많지 않다. 우리와 동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이 성실한 재능 앞에서, 관객의 성별이나 나이, 심지어 국적과 언어 또한 중요한 것이 아니다. 만약 아직까지 〈억척가〉를 만나지 못했다면, 이번 기회만큼은 절대로 놓치지 말자.

LEE Jaram's Pansori *Ukchuk-ga* returns in an upgraded version of staging. Taking a cue from Brecht's 'Mother Courage and Her Children', LEE Jaram molded it into a completely new version of Pansori with the director NAM In-Woo. Writer and composer, LEE plays more than 15 characters single-handedly. In 2012, *Ukchuk-ga* received invitations from Theatre National Populaire in Lyon and INTERFERENCES International Theatre Festival in Romania. Just like in Seoul, this piece drew enthusiastic audience applause in both countries. If you didn't have chances for last two years, do not miss this time.



“경이로운 예술가 이자람의 몸짓과 소리가 빚어내는 혼신의 무대, 벼락을 맞은 듯한 감동”

매일경제 김솔기 기자

11.2 sat - 3 sun

4pm

R 70,000 won

S 50,000 won

A 30,000 won

DANCE

벨기에 피핑 톰 무용단 〈반덴브란덴가 32번지〉

공연 시간 80분, 휴식 없음

Duration 80mins. no interval

이제 피핑 톰과 함께 벨기에 현대 무용의 또 다른 새로움을 기대하라!

어느 언덕배기의 막다른 골목, 그 한 칸에 세워진 허름한 주거용 트레일러들... 벨기에에 달동네가 있다면 어쩌면 이런 모습일지도 모른다. 음울한 하늘 아래 황폐하고 외딴 섬 같은 곳 거기에 고립된 사람들은 각기 외로움과 절망, 두려움과 마주하면서 모호해져만 가는 현실과 환상의 경계를 이리저리 부유한다...

안무가 가브리엘라 카리조(Gabriela Carrizo)와 프랑크 샤흐티에(Franck Chartier)가 이끄는 피핑 톰 무용단은 안느 테레사 드 케이크스마커, 안 파브르, 알랑 플라텔, 빔 반데키부스 등 세계 현대 무용계를 휩쓴 빅 네임(big name)들이 대거 포진한 벨기에 내에서도 마치 작지만 가장 밝은 빛을 내는 보석처럼 단연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2000년 창단한 이후 인간 삶의 조건에 주목하며 무용과 음악, 극적 요소들을 결합시킨 이들만의 독창적인 작품들은 2009년 발표된 〈반덴브란덴가 32번지〉에서 스타일의 압권을 이뤄내며 유럽 관객과 평단으로부터 엄청난 찬사를 이끌어냈다. 유럽과 미주 대륙을 사로잡은 이들에 관한 대단한 소문의 실체를 이제 직접 가까이에서 확인해볼 때다. 적막한 눈발 위의 몸부림, 바람처럼 차갑고 시린 유머, 독특하고 시적인 미학으로 가득 찬 장면의 콜라주(collage)들은 마치 꿈처럼, 영화처럼 초현실적인 한 편의 겨울 이야기로 우리의 의식 속에 깊은 잔영을 남길 것이다. 피핑 톰, 지금 이들을 향한 작은 기대는 올 가을 큰 감동으로 되돌아올 것이다.

We find ourselves in a small isolated community. A snowy mountain town where rickety caravans offer the only protection under the unchanging heavens and whose young inhabitants are confronted by their own loneliness and the subconscious. The boundary between what really happens and what they think they experience slowly blurs. The performances by the Brussels' dance collective, Peeping Tom, take place on the limits of theatre, dance, and music. The stories are mysterious and the sets often grotesque.



〈32 rue Vandenbranden〉 by Peeping Tom



“그들의 재능은
무시무시할 정도다.”

Le Monde, 프랑스

11.6 wed - 10 sun
 weekdays 8pm
 sat 3pm & 7pm / sun 3pm
 VIP 120,000 won
 R 100,000 won
 S 80,000 won
 A 60,000 won
 B 40,000 won

DANCE

스페인 국립 플라멩코 발레단

Ballet Nacional de España <Grito> & <Suite Sevilla>

프로그램
 <그리토>, <스위트 세비아>

정통 플라멩코의 화려한 귀환

플라멩코로 대표되는 스페인의 풍요로운 춤 유산. 이에 관한 한 최고의 정통성을 자랑하며 수많은 대가와 스타 댄서들을 배출한 스페인 국립 플라멩코 발레단(Ballet Nacional de España : BNE)이 관객들의 열광적인 앵콜 요청에 힘입어 두 번째 내한 무대를 갖는다. 2011년 처음으로 내한해 매진에 가까운 판매고를 올리며 한국 관객들에게 플라멩코의 진수를 보여주었던 BNE는, 플라멩코계의 젊은 실력자 안토니오 나하로(Antonio Najarro)의 예술감독 아래 전통을 바탕으로 새로운 혁신과 창조를 걷어오고 있다. 이번에 선보일 프로그램은 1부 안토니오 까날레스(Antonio Canales) 안무의 <그리토 Grito>, 2부에서는 안토니오 나하로 안무의 <스위트 세비아 Suite Sevilla>가 이어지며 라이브 뮤지션과 남녀 무용수를 포함해 40여명에 달하는 출연진들이 잠시도 눈을 땔 수 없을 만큼 짜릿하고 역동적인 무대를 만들어낸다. 흐느끼듯 영혼을 파고드는 노래, 정열적인 기타의 선율, 경쾌한 리듬의 캐스터네츠와 현란한 손뼉과 발구르기가... 화려한 의상에 매혹적인 외모의 무용수들은 카리스마 넘치는 솔로와 우아하면서도 관능적인 듀오, 일사불란한 군무를 펼쳐며 거부할 수 없는 매력으로 관객들의 눈과 귀를 사로잡는다. 영혼의 울림, 원초적인 에너지, 뜨거운 정열. 이들의 무대를 직접 보지 않고서는 그 어느 것도 제대로 논하기 힘들 것이다.

Spain's premier ambassadors of flamenco make a welcome return to Seoul. Ballet Nacional de España (BNE : National Ballet of Spain) is the world-class company consisting of dozens of talented dancers, singers and musicians. Founded in 1978 by the Spanish Ministry of Culture, the company is now facing a new creative period with various projects under the direction of Antonio Najarro. Performing two brand new repertoires, BNE will enchant Korean audience with their perfect technique, physical beauty and passion irresistible.

“손과 발에 불꽃 튀길 때
 숨조차 쉴 수 없었다.”

동아일보

11.13 wed
8pm

R 80,000 won
S 60,000 won
A 40,000 won

CLASSICAL MUSIC

첼리스트 장-기엔 케라스

프로그램

카사도 무반주 첼로 모음곡
바흐 무반주 첼로 모음곡 제 3번 BWV 1009
코다이 무반주 첼로 소나타 Op.8

*상기 프로그램은 연주자의 사정에 따라
예고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2010년 프랑스 출신 피아니스트 알렉상드르 타로(Alexandre Tharaud)와의 듀오 무대에서 “최고급 프랑스 요리 같은 음악”(연합뉴스)을 선사하며 국내 음악 애호가들의 마음을 단번에 사로잡았던 첼리스트 장-기엔 케라스(Jean-Guihen Queyras)가 오는 11월 LG아트센터에서 첫 단독 리사이틀을 갖는다.

케라스는 아르모니아 문디의 전폭적인 지원 아래 프랑스 레퍼토리는 물론 바흐, 슈베르트, 리게티, 만토바니 등 바로크와 낭만주의 그리고 20-21세기 현대음악까지 두루 섭렵하며 오늘날 가장 균형 잡힌 연주를 들려주고 있는 첼리스트다. 케라스의 바흐 무반주 첼로 모음곡 음반이 필칭 음반으로 손꼽히거나 바로크 첼로 연주로 찬사를 받기도 하지만, 그가 가장 애착을 보이는 것은 다음 아닌 현대 레퍼토리다. 세계적인 현대음악 단체인 ‘앙상블 앵테르콩템포랭(Ensemble Intercontemporain)’의 솔로 첼리스트였던 그는 10여년 이상 피에르 불레즈(Pierre Boulez)와 함께 활동하면서 리게티의 첼로 협주곡과 불레즈의 ‘메사세스키스’ 녹음으로 그라모폰 상을 수상하기도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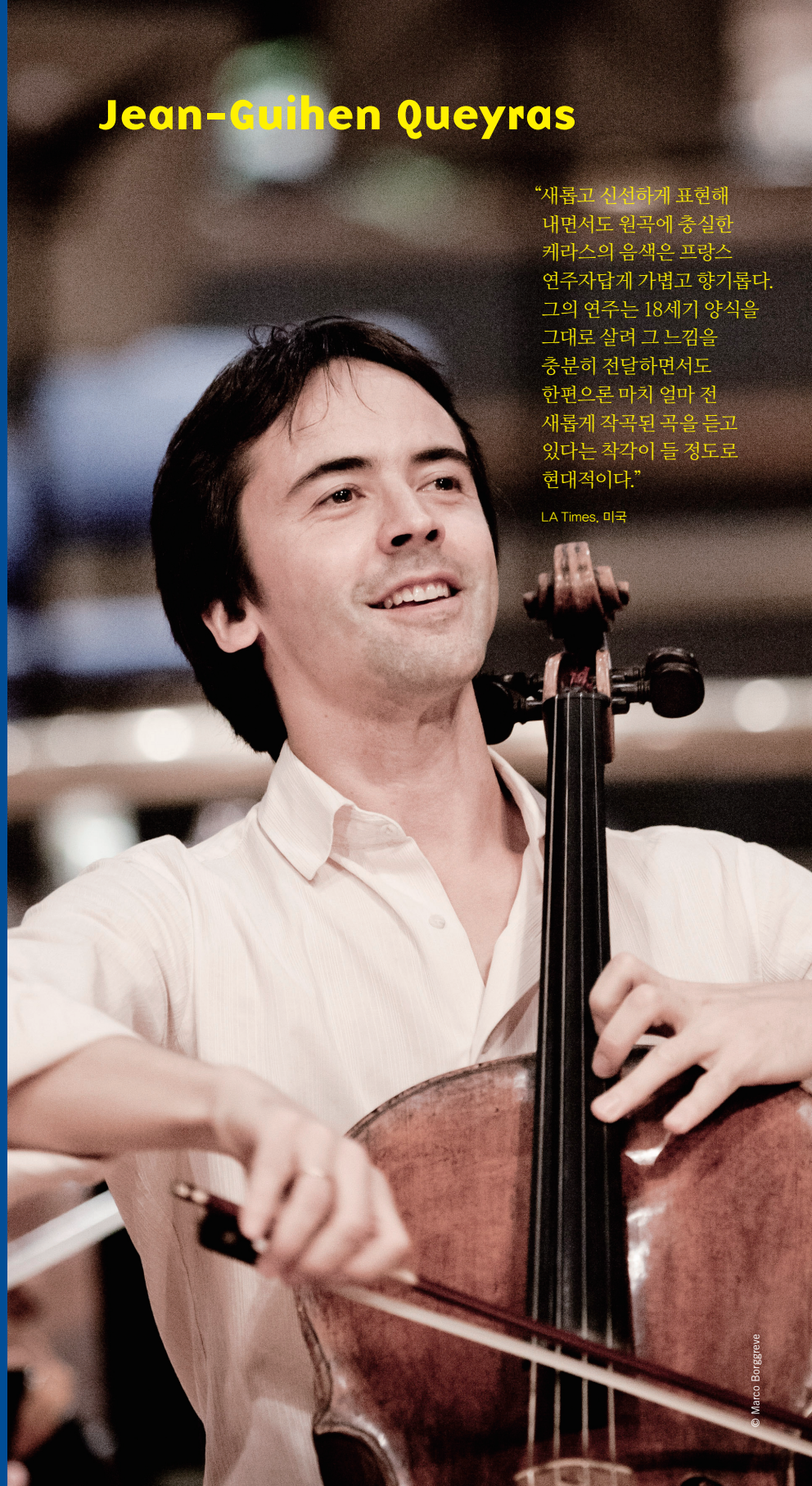
2010년 LG아트센터 무대에서 단 10분 동안 연주한 솔로곡, 뒤티외의 “첼로를 위한 3개의 노래”로 강렬한 인상을 남긴 케라스는 이번 공연에서 전통과 현대를 대표하는 3개의 무반주 첼로곡으로 자신의 진가를 유감없이 보여줄 예정이다. 무반주 첼로곡의 시조(始祖)적인 바흐 무반주 첼로 모음곡과 더불어 파블로 카잘스(Pablo Casals)의 후예로 잘 알려진 스페인 출신의 작곡가 카사도(Gaspar Cassadó, 1897-1966)의 무반주 첼로 모음곡을 이 곡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 코다이(Zoltán Kodály, 1882-1968)의 무반주 첼로 소나타와 함께 연주한다는 점에서 더욱 주목할 만하다.

Having captivated Korean audience's heart in the duo concert with Alexandre Tharaud in 2010, French cellist Jean-Guihen Queyras will give his first solo recital at LG Arts Center in November. Widely praised for his matchless prominence in the extensive repertoire from baroque to contemporary, Queyras will present in his recital unaccompanied cello pieces by J. S. Bach, Kodály and Cassadó.

Jean-Guihen Queyras

“새롭고 신선하게 표현해 내면서도 원곡에 충실한 케라스의 음색은 프랑스 연주자답게 가볍고 향기롭다. 그의 연주는 18세기 양식을 그대로 살려 그 느낌을 충분히 전달하면서도 한편으론 마치 얼마 전 새롭게 작곡된 곡을 듣고 있다는 착각이 들 정도로 현대적이다.”

LA Times, 미국



LG아트센터-신한카드

러시 아워 콘서트

4.18^{thu} / 5.23^{thu} / 6.14^{fri} / 9.13^{fri} / 11.12^{tue} 총 5회

7pm 전석 15,000^{won}

딱 막힌 당신의 마음을 뺨 뚫어주는 한 시간의 음악 여행!

복잡한 퇴근 시간, 러시 아워를 피해 가벼운 마음으로 즐기는 공연 한 편!
1만 5천원의 착한 가격과 누구나 즐길 수 있는 편안한 프로그램으로
관객들의 사랑을 듬뿍 받아 온 '러시 아워 콘서트'가 2013년에도 계속됩니다.

저렴한 가격이지만 진정한 고수가 아니라면 이 무대에 설 수 없습니다.
인디 록부터 힙합, 클래식과 현대 음악, 보사노바와 탱고까지!
세상의 모든 다양한 음악들이 문턱을 낮추어 당신 곁으로 찾아옵니다.

초보 관객부터 음악 매니아까지, 모두가 즐거운 '러시 아워 콘서트'와 함께
일상의 스트레스를 날려보내고 가볍하게 귀갓길에 오르세요!

* 2013년 '러시 아워 콘서트'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LG아트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추후 공개됩니다.



LG아트센터의 회원이 되세요!

LG아트센터 회원이 되시면

24시간 인터넷으로 티켓을 구매/취소하실 수 있고, 예매 시 예매 수수료가 없습니다.
기획공연 구입금액의 5%를 아트포인트로 쌓아서 나중에 현금처럼 사용하세요.

가입비, 연회비도 없고, 공연을 보면 볼수록 많아지는 혜택을 누리시려면
LG아트센터 회원이 되세요!

가입 혜택

- LG아트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예매 시 예매 수수료가 없습니다.
- LG아트센터의 공연 정보를 e-mail과 우편으로 제공해 드립니다.
- 사전 예매한 공연 내역은 관람 2-3일 전에 SMS와 e-mail을 보내드립니다.
- 기획공연 티켓 구매 시 구입 가격의 5%에 해당하는 아트포인트를 적립해 드립니다.
(러시 아워 콘서트, 10% 초과 할인 구매 시 적립 불가)
- 아트포인트는 주차권 구매 및 기획공연 티켓 할인, 프로그램 교환 등 원하시는 서비스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오시는 길

- 지하철**
- 2호선 역삼역에서 하차 후 7번 출구 방향으로 가시면 GS타워 지하 1층이 연결되어 있으며, 지하 1층에서 LG아트센터 전용 엘리베이터에 탑승하시면 됩니다.
 - 공연 전 혼잡을 피하시려면, 역삼역 8번 출구에서 직진 후 첫 번째 코너(현, 엔젤리너스 커피)에서 좌회전하시어, LG아트센터 메인 로비로 오시면 됩니다.
- 버스**
- 146, 147, 360, 730 - 역삼역 정류장 하차
- 주차**
- 자가 차량 이용 시, 주차는 GS타워 지하주차장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 공연을 보신 분에 한해 LG아트센터 메인 로비의 정산소에서 할인된 금액(3,000원)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문의/예매

LG아트센터 02-2005-0114 / www.lgart.com

제휴 레스토랑 할인 안내

LG아트센터 당일 입장권 또는 예매 확인서를 소지하시고 해당 레스토랑을 방문하시면, 다음과 같은 혜택을 드립니다. (타 쿠폰 및 할인 카드와 중복 사용 불가)

KOREAN 🍴

손수헌(한식)

GS타워 지하 1층
02 - 2005 - 1005~6
11:30 - 14:30 / 17:30 - 22:00 (일요일 휴무)
식사 금액 10% 할인

ASIAN 🍴

심카이(중식당)

GS타워 지하 1층
02 - 2005 - 1003~4
11:30 - 14:30 / 18:00 - 22:00
식사 금액 10% 할인

강가(인도식 커리)

GS타워 지하 1층
02 - 2005 - 0610
11:30 - 15:30 / 17:30 - 22:00
세트메뉴 10% 할인 (티켓 1매 당 1세트)

WESTERN 🍴

지아니스 나폴리 (이탈리안 비스트로 & 화덕 피자)

GS타워 정문 맞은편 2층
02 - 566 - 0501
11:00 - 23:00
지아니스 시저 샐러드 제공

보나베피 역삼점 (이탈리안 레스토랑 & 와인 바)

GS타워 정문 맞은편 3층
02 - 569 - 8253
11:30 - 24:00 (일요일 휴무)
일주일 이내 티켓 제시 시 평일 10%,
토요일 20% 할인

아리산(중식당)

역삼역 2,3번 출구 강남파이낸스센터 후문 앞
02 - 538 - 9205
11:00 - 22:00
1개월 이내 티켓 제시 시 주말 20% 할인

포후이(베트남 쌀국수)

역삼역 7번 출구 차병원 방향 100M
02 - 558 - 0073
10:00 - 22:00
식사 금액 10% 할인
(평일 오후 12시 40분 이후,
주말 전 시간대 가능)

BUFFET 🍴

오리옥스(오리엔탈 뷔페)

GS타워 지하 1층
02 - 2005 - 1007~8
11:30 - 14:30 / 18:00 - 22:00
식사 금액 10% 할인

COFFEE ☕

탐앤타스 역삼GS타워점

LG아트센터 정문(3층) 좌측 맞은편
02 - 568 - 4565
24시간
10% 할인 또는 사이즈 무료 업그레이드
(티켓 1매당 1잔)

4 APRIL

4.10(wed)-12(fri) 7:30pm

레프 도진 연출, 상트 페테르부르크 말리 극장
<세 자매>

The Maly Drama Theatre of St. Petersburg
<Three Sisters> directed by Lev Dodin
R 70,000 / S 50,000 / A 30,000

4.13(sat) 5pm

피아니스트 김선욱 <베토벤 소나타 전곡> (No.17-21)

Sunwook KIM Plays <Beethoven's Complete 32
Piano Sonatas> (No.17-21)
R 70,000 / S 50,000 / A 30,000

4.17(wed) 8pm

나윤선 콰르텟

Youn Sun NAH Quartet
R 80,000 / S 60,000 / A 40,000

4.21(sun) 4pm

양성원 <바흐 무반주 첼로 모음곡 전곡>

Sung-Won YANG <J. S. Bach's Six Cello Suites>
R 70,000 / S 50,000 / A 30,000

4.25(thu)-5.8(wed)

weekdays 8pm, weekend 3pm & 7pm
탱고 뮤지컬 <탕게라>

Tango Musical <Tanguera>
VIP 130,000 / R 110,000 / S 90,000 /
A 70,000 / B 50,000

5 MAY

5.11(sat)-12(sun) 5pm

타이거 릴리스 밴드 <늑은 뱃사람의 노래>

The Tiger Lillies <The Rime of the Ancient Mariner>
R 80,000 / S 60,000 / A 40,000

5.21(tue) 8pm

스테파노 볼라니

Stefano Bollani Jazz Piano Solo
R 80,000 / S 60,000 / A 40,000

6 JUNE

6.1(sat)-2(sun) sat 7pm, sun 5pm

필립 헤레베헤 지휘,

상젤리제 오케스트라 & 클레기움 보칼레 겐트
모차르트 <레퀴엠>

Orchestre des Champs-Elysées & Collegium
Vocale Gent conducted by Philippe Herreweghe
VIP 150,000 / R 130,000 / S 100,000 /
A 70,000 / B 40,000

6.5(wed)-7(fri) 8pm (6.6 5pm)

프랑스 마기 마랭 무용단 <총성>

<Salves> by Compagnie Maguy Marin
R 80,000 / S 60,000 / A 40,000

6.20(thu) 8pm

피아니스트 김선욱 <베토벤 소나타 전곡> (No.22-26)

Sunwook KIM Plays <Beethoven's Complete 32
Piano Sonatas> (No.22-26)
R 70,000 / S 50,000 / A 30,000

9 SEPTEMBER

9.14(sat) 5pm

피아니스트 김선욱 <베토벤 소나타 전곡> (No.27-29)

Sunwook KIM Plays <Beethoven's Complete 32
Piano Sonatas> (No.27-29)
R 70,000 / S 50,000 / A 30,000

9.27(fri) 8pm

하겐 콰르텟

Hagen Quartet
R 80,000 / S 60,000 / A 40,000

10 OCTOBER

10.1(tue)-3(thu) 8pm (10.3 3pm)

데클란 도넬란 연출,

러시아 체흐 페스티벌 제작 <템페스트>

Chekhov International Theatre Festival
Shakespeare's <The Tempest>
directed by Declan Donnellan
R 70,000 / S 50,000 / A 30,000

10.9(Wed)-20(Sun) weekdays 8pm

sat 3pm & 7pm, sun 5pm (10.9 5pm)

서재형 연출, 최우정 작곡

음악극 <더 코러스; 오이디푸스> 앵글

<The Chorus; OEdipous> directed by
Jae-Hyung SEO, composed by Uzong CHOE
All seats 50,000

10.25(fri)-27(sun) fri 8pm, weekend 5pm

이자람의 판소리 브레히트 <역척가> 앵글

LEE Jaram, Pansori <Ukchuk-ga>

directed by NAM In Woo

R 50,000 / S 30,000

11 NOVEMBER

11.2(sat)-3(sun) 4pm

벨기에 피핑 톨 무용단 <반덴브란덴가 32번지>

<32 rue Vandenbranden> by Peeping Tom
R 70,000 / S 50,000 / A 30,000

11.6(wed)-10(sun) weekdays 8pm

sat 3pm & 7pm, sun 3pm

스페인 국립 플라멩코 발레단

Ballet Nacional de España

<Grito> & <Suite Sevilla>

VIP 120,000 / R 100,000 / S 80,000 /
A 60,000 / B 40,000

11.13(wed) 8pm

헬리스트 장-기엔 케라스

Jean-Guihen Queyras

R 80,000 / S 60,000 / A 40,000

11.21(thu) 8pm

피아니스트 김선욱 <베토벤 소나타 전곡> (No.30-32)

Sunwook KIM Plays <Beethoven's Complete 32

Piano Sonatas> (No.30-32)

R 70,000 / S 50,000 / A 30,000

LG Arts Center

02-2005-0114 / www.lgart.com

CoMPAS13

LG아트센터 기획공연 패키지

PACKAGES



가장 좋은 자리에서 실속 있게 관람하세요!
그 어떠한 곳에서도 모방할 수 없는 감동,
LG아트센터에 있습니다.
2000년 개관부터 함께해 온
LG아트센터 기획공연 패키지,
올해도 변함없이 최고의 감동과 만족을 드릴 것입니다.

Become an LG Arts Center subscriber
and enjoy exclusive benefits!
It's a great chance to save up to 40%
to see the world's best performances.

패키지 티켓 **2013. 2. 5(화) 9am**
오픈

PACKAGE **Tue, Feb 5, 2013 9am**
TICKETS
ON SALE

패키지 종류

장르 패키지

연극 / 무용 / 클래식 / 뮤직 패키지

더블 패키지

연극과 무용 8편을 모두 보는 연극, 무용 매니아 패키지

자유 패키지

원하는 작품을 골라 큰 할인으로 보는
프리 스타일 패키지

김선욱 베토벤 패키지

김선욱 피아노 소나타 4편 모두를 관람하는 패키지

패키지 혜택

- 최고 40%, 최대 539,000원 할인 혜택!
- 패키지 카드 발급
- 자유 패키지 10편 이상 구매 시 '프로그램 바인더' 증정
- 패키지 구매자가 추가로 개별 티켓을 구매할 경우, 구매했던 공연을 대상으로 총 2매까지 할인을 15% 제공(전화로만 가능)

패키지 이용방법

- 인터넷, 전화 및 방문 예매가 가능합니다.
- 각 패키지별 구매 가능 기간이 다르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구입하신 패키지의 해당 첫 공연 시작일부터는 취소 및 변경을 하실 수 없습니다.
- 모든 패키지는 동일 좌석등급으로만 선택 가능합니다.
(단, R석 패키지의 경우, VIP석으로 상향 선택 가능합니다.)

문의 및 예매

- www.lgart.com
- 대표소 운영 시간 : 평일 9am - 6pm
(주말, 공휴일 휴무)
- Tel: (02) 2005-0114
- Fax: (02) 2005-1538

PACKAGES

GENRE PACKAGES

Theatre Package / Dance Package /
Classical Music Package / Music Package
R 25% S 20% A 20%

DOUBLE(THEATRE + DANCE) PACKAGE

Save up to ₩256,000 when choosing the top grade for
8 presentations.
R, S, A 40%

FREE CHOICE PACKAGES Make your own selections!

Save up to ₩539,000 when choosing the top grade for
all season programs.
35% for 10 or more / 25% for 7 or more / 15% for 5 or more

SUNWOOK KIM BEETHOVEN PACKAGE

Choose 4 presentations 'Sunwook KIM Beethoven' with a
12% discount.

HOW TO PURCHASE

- Package tickets can be purchased by phone call, online or at the box office.
- Purchased package tickets cannot be refunded nor altered after the first performance in the packaged presentations.

WHEN TO PURCHASE

- Free Choice Package: ~ until Thu, Oct 24, 2013.
- Theatre, Dance Package: ~ until the day before the second presentation in the packaged presentations.
- The other Packages: ~ until the day before the first performance in the packaged presentations.

INQUIRY & BOOKING

- www.lgart.com
- Box Office: Weekdays 9am-6pm
- Tel: +82(2) 2005-0114
- Fax: +82(2) 2005-1538
- E-mail: arts2005@lgart.com

연극 패키지

예매 기간
2013.2.5(화) ~ 9.30(월)



4.10(수) ~ 12(금)	레프 도진 연출 <세자매>
10.1(화) ~ 3(목)	데클란 도넬란 연출 <템페스트>
10.9(수) ~ 20(일)	서재형 연출, 최우정 작곡 음악극 <더 코러스; 오이디푸스> 앵글
10.25(금) ~ 27(일)	이자람의 판소리 브레히트 <억척가> 앵글

4편 중 3편 이상 선택

R 25%

S 20%

A 20%

무용 패키지

예매 기간
2013.2.5(화) ~ 6.4(화)



4.25(목) ~ 5.8(수)	탱고 뮤지컬 <탕게라>
6.5(수) ~ 7(금)	프랑스 마기 마랭 무용단 <총성>
11.2(토) ~ 3(일)	벨기에 피랑 톨 무용단 <반덴브란덴가 32번지>
11.6(수) ~ 10(일)	스페인 국립 플라멩코 발레단

4편 중 3편 이상 선택

R 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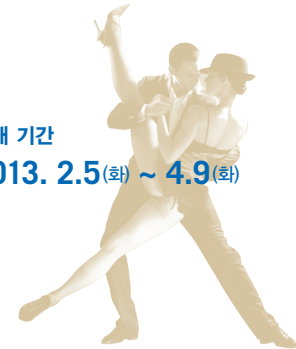
S 20%

A 20%

(R석 패키지 구매 시 탕게라, 플라멩코 VIP석 상향 선택 가능)

더블 패키지

예매 기간
2013. 2.5(화) ~ 4.9(화)



연극, 무용 총 8편을 모두 관람 시
전 등급 40% 할인!

R 40%

~~600,000~~ → 360,000 won

S 40%

~~460,000~~ → 276,000 won

A 40%

~~340,000~~ → 204,000 won
(단, 억척가는 S석 적용)

(R석 패키지 구매 시 탕게라, 플라멩코 VIP석 상향 선택 가능)



클래식 패키지

예매 기간
2013.2.5(화) ~ 4.12(금)



4.13(토) / 6.20(목) 9.14(토) / 11.21(목)	피아니스트 김선욱 〈베토벤 소나타 전곡〉 (No.17-32)
4.21(일)	양성원 〈바흐 무반주 첼로 모음곡 전곡〉
6.1(토) ~ 2(일)	필립 헤레베헤 지휘, 상젤리제 오케스트라 & 콜레기움 보칼레 젠트 모차르트 〈레퀴엠〉
9.27(금)	하겐 콰르텟
11.13(수)	첼리스트 장-기엔 케라스

R 25% **S** 20% **A** 20%

(‘김선욱 베토벤 소나타’는 한 회 이상 선택 가능)

(R석 패키지 구매 시 필립 헤레베헤 공연 VIP석 상황 선택 가능)

김선욱 베토벤 패키지

예매 기간
2013.2.5(화) ~ 4.12(금)



4.13(토), 6.20(목), 9.14(토), 11.21(목)
김선욱 〈베토벤 소나타 전곡〉
4회 공연 모두 구매 시 12% 할인

R 12% ~~280,000~~ → 246,400 won

S 12% ~~200,000~~ → 176,000 won

A 12% ~~120,000~~ → 105,600 won

뮤직 패키지

예매 기간
2013.2.5(화) ~ 4.16(화)

4.17(수)	나윤선 콰르텟
5.11(토) ~ 12(일)	타이거 릴리스 밴드 〈늑은 뱃사람의 노래〉
5.21(화)	스테파노 볼라니

R 25% ~~240,000~~ → 180,000 won

S 20% ~~180,000~~ → 144,000 won

A 20% ~~1200,000~~ → 96,000 won

자유 패키지

예매 기간
2013.2.5(화) ~ 10.24(목)



2013년 모든 기획공연을 대상으로
동일 좌석등급으로 구매 가능하며,
동일 공연의 중복 선택은 불가합니다.

(단, R석 패키지는 VIP석으로 상황 선택 가능합니다.)

10편 이상



35%

7편 이상



25%

5편 이상



15%